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 185-192, 2016
http://dx.doi.org/10.15207/JKCS.2016.7.6.185

디지털 시대의 융·복합 교육을 위한 영어영재 교사교육 방안

박진규
서원대학교 교양학부

Way of Training English Teacher's of Verbally Talented Children for convergence-based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Jinkyu Park
Liberal Arts, Seow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영재 영어교육을 담당하는 영어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영어교육과 영재교육의 지식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지나치게 원어민 중심, 속진 중심 영어전용 교육 중심의 영어교육과 영어교사 교육에 내재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영재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먼저 이 두 분야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영재 영어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따른 영재 영어교사 연수의 방향을 제시한다. 지나치게 영어 하나에 초점을 둔 현재의 영재 영어교육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이중언어 중심의 내용중심과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융·복합 기반의 표현중심 영재 영어교육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영재 영어교사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영어교육, 영재교육, 교사교육, 융복합 교육, 표현중심, 이중언어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ddress several problems embedded in the training of English teachers for gifted programs. With a critical analysis of current English Education and English teacher training, the researcher points out some possible problems in English Education and English teacher training in South Korea. The researcher also points out possible problems in teaching English for Gifted Children. Based on the given problems, the researcher accordingly suggests available solution to English Education for gifted Children, and also better ways of English teacher training for gifted programs. The researcher suggests bilingual, production-based and convergence-based English education for gifted children and those English teachers for gifted children.

• **Key Words** : English Education, Gifted Education, teacher training, convergence-based Education, bilingualism

I. 서론

2000년 전후로 한국 교육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영어교육이었다. 새로운 교수법의 도입으로, 정부의 의욕적인 개입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영어교육의 방향이 글 중심에서 말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또한 점점 더 어린 학생들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었다. 게다가 '영어영재 교육'이라는 개념(아직 논리적 타당성이 검

*Corresponding Author : 박진규(dansaem@naver.com)
Received October 19, 2016 Revised November 22, 2016
Accepted December 20,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증되지는 않았지만)의 등장으로 교육계에 새로운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르면서 교육계의 화두는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융·복합교육이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창의적인(creative)”, 그리고 “혁신적인(innovative)”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창의성이라는 말이 교육정책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용어처럼 사용되기 시작했고, 정부와 학교,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그 용어를 어떠한 의문도 없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창의·인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교육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창의성을 계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그 방안으로 융·복합교육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런 창의성이나 인성계발 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한 융·복합 교육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진행되다 보니 일선 학교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는 영어교육과 창의성과 인성계발을 위한 융·복합교육의 한 부분으로 ‘융·복합교육을 통한 영재 영어교육’(‘영어영재’의 용어의 설명은, 박진규[1, 2] 참조)에 대한 이슈를, 구체적으로 융·복합교육을 위한 영재 영어교사 교육에 초점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의 영어교육과 영어교사교육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후, 영재들을 위한 영어교육과 융·복합교육을 통한 영재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교사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영어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다. 먼저 2006년 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3]에 나오는 문제를 먼저 분석해 보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 논의한 다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점은 양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어수업시수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교과 전담교사의 부족을 들 수 있고, 질적으로는 영어교사의 역량 부족 및 1인당 학급 수 과다로 인한 수업 부실, 단조로운 지필고사 위주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한 문법, 암기식 수업 일색을 들 수 있다.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발표한 자료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이런 의견이 사회의 여론이고 또 여론을 형성한다는 사실이고, 다음으로 이 의견이 상당부분 논리적이고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의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은 영어는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 양적인 입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고 영어시간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논리가 그 근간이 된다. 간단히 말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는 논리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영어교육을 국내외의 선행 연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문제들이 있다. 첫째, 이중언어 발달에 대한 고려가 없다. 즉, 지나치게 영어라는 단일 언어 발달에 대한 강조가 있을 뿐이다. 둘째, 인지발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아동들은 이미 모국어로 많은 것을 배웠는데도 나이와 인지발달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셋째, 유창성 발달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정확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유창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넷째, 읽기와 쓰기 중심의 문식성(literacy) 발달에 대한 고려가 적다. 이 경우 과거처럼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단문독해식 영어교육이 아닌 내용 중심의 영어교육을 말한다. 최근 듣기와 말하기 등 말 중심의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이런 문제의 핵심이다. 여섯째, 적극적인 표현 중심의 영어 교육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즉, 소극적 이해 중심의 영어교육에 지나친 초점이 있어, 쓰고 말하는 표현 중심의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적 관점의 고려가 없다. 특히 미국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다문화 이해라는 국제적인 추세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혹자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교육 여건으로 돌리고, 또 혹자는 교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물론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라고 하는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단순히 어떤 특정 집단이나 교수법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가진 영어교육의 숙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지나친 말 중심의 영어교육은 인터넷 시대에 문식성을 강조하는 내용중심 영

어교육의 추세에서 다소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특히 교육 여건과 교사의 변화가 없고 과거의 교수방법을 거의 바꾸지 않는 한국의 상황은 이런 숙제들을 더욱 더 풀기 어렵게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어교육이 말 중심이 아니라 글 중심이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영어교육은 글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의 영어교육은 의미중심이나 내용중심이 아니라 지나치게 언어분석중심이었다. 특히 문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어휘의 의미 설명에 치중하는 영어교육이었다.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영어교육, 즉, 영어를 수단으로 하는 영어교육이 아니라 영어를 목적으로 하는 영어교육, 즉, 말의 분석과 단어나 구, 문장의 의미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는 곧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영어교육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지나치게 미국과 캐나다 중심의 북미권 원어민 중심의 영어를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하면서 현실적인 성취에 대한 기대치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여 학생들을 사교육이나 외국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무분별한 조기유학으로 인한 국부의 유출과 비정상적인 언어, 인지 발달과 아동학대 등의 비정상적인 발달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4]. 이는 우리 영어교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4].

III. 영어교사교육의 문제점

이렇게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 영어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영어교사교육이 라고 할 수 있다. 비원어민으로 영어활용능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유창한 영어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교수법에 익숙한 영어교사가 새로운 영어교육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영어교사교육 여건으로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부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현직 영어교사의 연수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비교사들의 준비와 연계된 것이다.

먼저 현직 영어교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한마디로 교사연수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거의 없다. 정부의 연수기관들은 어떻게 교사교육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향설정이 미흡하고 일선 교사들은 영어교사로서 자기계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법을 알지 못한다. 한 가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각기 다른 나이와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영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막연한 개념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영어수업에 필요한 교사의 영어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고등학교 영어수업에 필요한 교사의 영어능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영어능력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성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교사가 원어민 수준의 영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영어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착각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영어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나이와 환경에 맞는 교사의 영어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창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 네 가지 기능의 지나치게 이상적인 영어수준보다는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즉 학생들이 가장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도록, 이 경우 교수법이 함께 포함되지만, 교사연수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교사연수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학습자에게 맞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영어교사연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의 관점인 예비교사 선발에 대한 기준과 선발방법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초중고 예비영어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칠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듣기보다는 객관적인 영어점수의 향상을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학생들에게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유창성 중심의 활용능력을 기르기보다는 전공시험을 위해 암기위주의 공부에 치중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 학생들의 전공영역에 나오는 내용들을 더 정확히 이해해서 나중에 가르칠 때 활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공지식을 잘 알고 영어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선발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는 가르칠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 만 단어를 외우느라고 날을 새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어를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 살면서 습득되는 유창성은 어휘의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쉬운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다.

이렇게 유창성 중심의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영어구사 능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현직 교사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면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기관들이 주도하는 5-6개월 단기연수도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예비교사들도 말하기와 쓰기가 중심이 되는 영어 표현능력인 영어 활용능력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어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임용 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 능력이 다른 교사들에게도 전이가 될 것이다.

IV. 영재 영어교육의 문제점

한 마디로 영재 영어교육은 영재교육의 문제점과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먼저 영재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영어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영재교육에서 이슈가 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화, 속진과 심화, 고등사고 능력, 창의력, 리더쉽 등.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보다도 차별화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의 제시는 영재교육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재들이 차별화 교육을 받아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증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면에서 영재 영어교육도 차별화된 교육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하다. 그러나 차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안은 교과과정에서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다.

영재교육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는 영재교육의 목적이 명료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모든 교육은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 영재교육의 목적은 그 목적이 일반 교육의 목적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전문성이나 속도라는 관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린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전문성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영재학생들에게 각각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길러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또한 교육의 형평성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속도의 문제다. 많은 경우 영재교육은 속진이라는 선행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선행이 과연 영재학생들의 발달에 긍정적인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 없다. 현재 선행학습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속진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교과간의 균형발달이다. 대개 지식이 유의미한 산출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즉, 의미 있는 문학적 창작을 위해서는 언어, 사회, 논리, 심지어는 과학까지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한 특정 분야의 지식의 발달을 위한 속진은 발달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는 외국어발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요즘 영어학원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초등학생이 TOEFL 공부를 하는 경우, 언어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내용을 이해할 만한 교과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공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그러므로 영재 영어교육에서는 융·복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재 영어교육에서 융·복합적 접근을 어떻게 가미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일반교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영어교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영재 영어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이런 교과 통합이나 연계에 대한 연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행히 국어와 영어라는 언어교과가 이런 융·복합 교육을 하기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2, 6, 7], 언어교육의 내용을 타 교과와 융합적인 자료를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융합 교과활동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물론 이런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육과 연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학급에서 영재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반 교과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많은 국가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균형발달을 추구하면서 속진의 가능성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보아도 타당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

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영재교육에 이중언어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영재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아동들에 비해 언어 발달이 매우 뛰어나 언어를 조기에 배워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그러므로 이런 영재학생들의 조기 문식성의 자원을 활용하는 이중언어 기반의 영재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또한 그들이 이미 모국어로 읽어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융·복합적 접근을 하는 영재 영어교육을 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박진규가 그의 영어영재지도법 저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전인 삼국유사를 영어로 가르치면서 영재아들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또한 역사나 정치학과 철학 고고학 등의 교과의 주제를 통해 융·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2].

이런 영재교육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영어교육의 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재 영어교육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영재 영어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일반 프로그램과 거의 차이가 없는 속진이고, 또 하나는 타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는, 즉, 과학이나 수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전용 교육 정도에서 그친다. 이는 영어교육에서도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영재교육이 차별화라는 주장을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지나치게 영어전용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영재들이 외국어를 더 빨리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어떤 프로그램은 더 빨리 진도를 나가고 또 더 많은 수의 단어를 외우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먼저,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에 관해 생각해 보자. 영재아들이 외국어를 더 빨리 습득할 가능성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어전용 수업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가장 쉽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바로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에서 고등사고능력을 어떻게 신장할 수 있느냐이다. 영어로 사고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영재학생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사고의 도구를, 즉, 모국어를, 활용하기 힘들다. 사고의 근간이 되는 모국어를 배제한 수업이 고등사고능력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영재교육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영어도 구사할 줄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더욱 심하다.

또한 영어로 과학이나 수학을 가르치는 경우 교과능력의 발달이 늦어진다는 이중언어 연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8, 9, 10]. 외국어로 교과를 가르칠 경우 적어도 그 말로 읽을 수 있거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기는 매우 어렵고 교과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영어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영재교육이 아니라 단지 영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또한 무리하게 영어라는 사고의 수단을 도입하면서 학생들의 교과지식의 발달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4].

솔직히 영재 영어교육에서 사고력을 신장하는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영재 영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해법은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영재교육과 영어교육 각 분야로 돌아가서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영재교육에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물론 속진이라는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영어교육에서 외국어 습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재아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영재아들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더 많고 깊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학습의 속도면서도 빠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4].

필자가 수업에서 제시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11]. 아동들에게 Phonics를 지도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한글의 소리와 영어의 소리의 비교와 대조를 통한 기존의 지도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조장하는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sulleung(선릉)'과 같은 어색한 지하철 역 이름이나 '김연아'라는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것을 응용해서 Yuna Kim이라는 표기가 타당한지 생각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 이름이 '유나,' '윤아,' '연아,' '여나' 등으로 표기될 가능성을 제시하여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런 표기가 여러 관점에서, 즉 한국인의 관점이나 외국인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비판적 접근을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표기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는 연구활동을 하게 한다. 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소리의 표기와 발음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배우게 된다.

V. 디지털시대의 융복합 영재교육

이런 영어교육과 영재교육의 문제는 최근 시대적 요구사항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융·복합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습자 중심 지능형 학습 시스템[12]이나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형실(AR), 그리고 최근의 혼합 현실(MR) 등의 새로운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시도까지 생겨나고 있다[12] 또한 최근 정부주도의 학생의 인성[13]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플립러닝[14, 15] 등의 융합형 교육프로그램까까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반교사들에게 부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요구사항이 되었다. 특히, 영어교사나 영재 영어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비록 현재 인문사회기반 융·복합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제한적이지만[15], 차윤정과 동료들은 언어교육과 영어교육은 그 자체로 융합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6]. 그 이유는 언어교육과 영어교육은 그 내용이 타 교과의 내용을 다루고 다양한 융·복합 교과활동이 가능하므로 본질적으로 융·복합 속성을 진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어교육의 융·복합 속성을 활용하여 박진규[2]는 융·복합 기반 영어 영재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저서에서 영어를 가반으로 고전, 인문학, 사회, 자연과학을 활용한 교과활동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융복합 기반 교과활동은 영재 영어교육에서 학생지도와 교사교육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융·복합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MOOC나 플립 러닝 기법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16, 17, 18]

VI. 영재 영어교사 교육의 방향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영어교사가 된다. 어떤 영어교사가 어떻게 영재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물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수준 높은 영어능력일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한마디로 영어교육에 대한 지식과 영재교육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영재를 가르치는 영어교사들은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영어능력이다. 이는 많은 수의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재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대개 초·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일반 학급을 지도하는 영어교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다만 영재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단어의 어원이나 문장의 구조 등을 조금 더 차원 높게 분석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는 있다. 즉, 영재아들의 언어분석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기초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음으로 영어교수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일반 영어교사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영재아들에게 사고력이나 창의력 신장을 위해 어떤 교수법을 활용해야 하는지는 영재교육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영어교수법과 영재교수법 두 가지 모두에 익숙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영재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리를 파악하게 도와주는 교수방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영재아들은 스스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재를 가르치는 영어교사들은 표현 중심의 영어교육과 융·복합 기반 언어교육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과도 통하는 부분이다. 다만, 영재아들은 사고력과 창의력 부분에서 더 깊이 있는 융·복합 교과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pivy[19]가 말하는 간텍스트(intertext)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교과지식을 갖추는 것과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영어교육에서 내용중심(content-based) 교육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에서는, 차원이 상당히 다르다. 영재교육에서는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차원의 산출을 가정한 간교과적 통합이나 융합이 필요하다. 문제해결을 초점으로 하는 언어교육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글의 표기에 대한 지식과 새로운 표기법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재아들의 사전지식을 활용해서 영어로 된 내용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배경지식을 조금 더 수월하게 활용하도록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예를 들면, 영어로 번역된 콩쥐팥쥐나 단군신화 등 우리의 고전을 수업에서 다루면 영재아들은 상위인지(metacognition)를 발달시키면서 그들의 분석적이고 추론적인 능력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어휘나 구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2, 19]. 다만 이 경우 why, when, where, who와 같은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왜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하면서 일반 영재 국어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고력 증진 기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영재 영어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법은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사연수와 영재학생들을 지도하는 영재 영어교수법에 대한 연수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어 영재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실습과 관찰을 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영어교사 연수에서 담당교사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Ⅶ. 제한점 및 결론

본고는 영재 영어교육이 이제 걸음마를 하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에 대한 현장의 교사나 학생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고, 교사연수나 현장 교육을 통한 실증적 실험 연구의 데이터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나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영재 영어 교사교육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는 것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영어교육을 통해 영재교육이 더욱 풍성해지고 새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영재 영어교과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영재 영어교사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기한 이런 문제제기가 새로이 시작하는 영역에 작으나마 파장을 일으켜 이 분야가 어떤 다른 분야보다 의미 있는 분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영재 영어교육은 단순히 두 영역이 합쳐지는 것은 두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영재 영어교육은 단지 속진이나 영어전용 교육이 해법이 아니다. 영어교육과 영재교육이 만나는 것은 두 분야의 일대일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주를 만들어 낸다. 또한 다양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재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는 다양한 최근 사회의 흐름과 방향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도 요구되며, 미래 사회를 정확하고 희망적으로 읽고 바라보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CKNOWLEDGMENTS

본고는 필자가 다년간 충청남도와 경기도 소재 초·중·고 현장에서 영어교육과 영재교육 담당하고 있는 영어교사와 영재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연수를 하면서 연수담당자로서 느낀 필요성과 연수 참가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영어영재지도법(박진규, 2016)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공교육과 사교육 현장에서 영어교육과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을 위해 특히 최근 영어영재교육이라는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영어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학술지의 형식과 현장교사들이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학술지 논문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REFERENCES

[1] Park, Jinkyu (2008). “Issues and Foreign Language(English) Gifted Education”, Journal of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vol. 3 4, No.3, pp.223-246, 2008.

[2] Park, Jinkyu “Teaching English Gifted Children, Sejong: Joy House”, 2016.

[3] Choi, Jaesung. “English Education, what is the alternative? policy Alternative for English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English Village Cases” parliamentary inspection policy data“, 2006

[4] Park, Jinkyu “ Korean Parents in English Fever and Their ‘Early-Study-Abroad’ Children in the US:

Parental Beliefs and Practices Concerning First Language Peers", Graduate School of Indiana University, 2007.

[5] J. M. Baily Literacy Development in Verbally Talented Children. In In J. VanTassel-Baska, D. T. Johnson, & L. N. Boyce (Eds.), Developing verbal talent: Ideas and strategies for teach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p. 174-188). Allyn & Bacon: Needham Heights, MA", 1996.

[6] Cha, Yunjung et al.. "Theory and Practices of Convergence-based Education, Seoul: Hakjisa", 2014.

[7] Kim, Soye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ntegrated English and science gifted program in elementary school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vol.6. No. 1.,pp. 69-94, 2007.

[8] Cook, V. J. (1997). "Monolingual bia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Revista Canaria de Estudios Ingleses, Vol. 34, pp. 35-50, 1997.

[8] Cook, V. J. "Using the first language in the classroom."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Vol. 57. No. 3), pp. 402-423, 2001.

[9] Ovando, C. J., Collier, V. P., & Combs, M. C. "Bilingual and ESL classrooms: Teaching in multicultural contexts,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2003.

[11] Park, Jinkyu "Using Multicultural and Multilingual Materials for Gifted English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Vol 8, No. 1, pp. 25-47, 2009.

[12] S. Y. Pi, M. S. Lee, Developing a Convergent Class Model of Augmented Reality and A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5, 85-93, 2016.

[13] M. S. Lee & J. Y. Jang "Program Develope and Class Design for Convergence ICT and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9, pp. pp. 9-18, 2016.

[14] J. M.. Lee, & H. K. Park "A Study on Cases for Application of Flipped Learning in K-12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pp. 19-36, 2016.

[15] D. Y. Lee & J. H. Park "Exploring new Directions of Flipped Learning with a Focus on Teachers' Percep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pp. 1-9, 2016.

[16] Kwon, Manwoo. "The Status Quo and Issues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based Convergence-based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conference proceedings, 2015.

[17] C. J. Bonk, M. M. Lee, T. C. Reeves, & T. H. Reynolds "MOOCs and Open Education Around the World' London: Routledge", 2015.

[18] N. Hamdan, P. McKnight, K. McKnight, K. M. Arfstrom, "A review of flipped learning. Flipped Learning Network", 2013.

[19] Spivy, N. N. (1987). Constructing constructivism: Reading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Poetics, 16, pp. 169-192.

저자소개

박 진 규 Jin-Kyu Park) [정회원]

- 1988년 2월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 2005년 5월 : Indiama University TESIOL & Appiled Linguistics (M.A.)
- 2007sus 5월 Indiama University Language Education (Ph. D)
- 2007년 3월 ~ 2011년 2월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 영어교육, 영재교육

- Email: dansaem@naver.com